

 금융위원회	보 도 설 명				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3.28.(일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(02-2100-2630)		담 당 자	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42)	

제 목 :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.

**[연합뉴스, 조선비즈, 헤럴드경제 등 3.29일자 보도에
대한 설명]**

1. 기사내용

- ☐ 연합뉴스, 조선비즈, 헤럴드경제 등은 3.29일자 「대출 전후 1개월내
같은 은행에서 펀드·방카 가입 금지된다...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① “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
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”
 - ② “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는
점이다.”로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

- ① 「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」에서는 일반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
전·후 1개월 내 펀드, 보험 계약을 금지하지 않습니다.(대출받은
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와의 보험, 펀드 등 거래 시에는 제한없음)
 - 보험상품은 중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차주에 대해 월 보험료
납입액이 대출금의 1%이내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,
 - 개인차주에 대한 펀드, 금전신탁 등 끼워팔기 관행을 척결하기
위해, 금소법 체제에서 대출전·후 1개월 내 투자성 상품 판매를
월납입액 기준 대출금의 1% 이내로 제한*하게 되었습니다.

* 예: 대출금이 1억원인 경우 펀드납입액은 연간 약 1,200만원까지 가능
- ② 「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」에서는 기존과 같이 “포괄근담보”를
금지하며, 특정근담보 外 한정근담보도 허용됩니다.



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
prfsc@korea.kr



합병관리청 콜센터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